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⑥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미래 예측과 전략이 필요



박 주 석
경영학과 교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내 인생의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이 3권 있다. 첫 번째 책은 고든 비 데이비스(Gorden B. Davis)의 ‘경영정보시스템(MIS)’이다. 1980년 대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전공을 경영정보시스템 분야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전통적인 경영학 분야가 대세였지만, 새로운 경영학 분야에 대한 믿음을 준 책이었다. 그 후 미국에서 MIS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고, 결국 나도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두 번째 책은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의 ‘정보 공학(information Engineering)’이었다. 1991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기업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나는 교수이면서 컨설턴트로 열심히 일했고 기업에 변화를 주는 보람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책은 조엘 구린(Joel Gurin)의 ‘오픈 데이터 나우(Open Data Now)’이다. 2016년에 우연히 추천사를 쓰게 되면서 알게 된 이 책은 나를 ‘데이터 생태계’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집중하게 하였다. 여기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에 흠뻑 빠지면서 지금은 ‘마이데이터 코리아허브(MyData Korea Hub)’라는 비영리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제 학교에 온 지도 30년이 넘었고 3년 후에 정년을 맞게 된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권이 문득 생각이 난다. SAP Korea 사장인 이성열 박사가 쓴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이다. 디지털 비즈니스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2의 인생을 준비

하는 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다.

미국 맥킨지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화 수준은 아직 20%에 머무르고 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치 재창출로 전 세계 GDP는 13조 달러(약 1경 5000조 원)가 추가 성장할 전망이다. 디지털 신시장은 열리겠지만 혁신 없는 기업은 급속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미국 빅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중국 빅3(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로 불리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기존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맥킨지컨설팅은 “향후 10년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살아남거나 죽는(Digitize or Die)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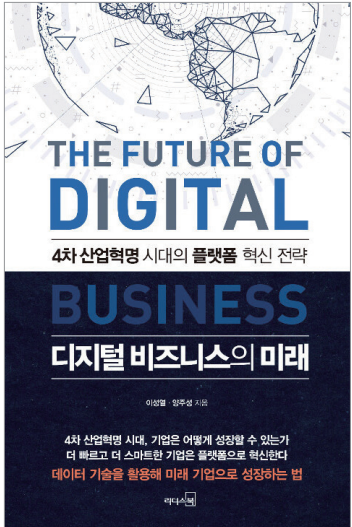
“Digitize or Die”라는 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하다. 정보기술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러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책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는 정보기술 비전공자가 이해해야 할 정보기술 상식과 전략을 제시해 준다. 특히 디지털 경제,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조하고 있다. 저자인 이성열 박사는 “전통적인 경제는 가치사슬 활동에 의한 경험 곡선으로 성장한다. 반면에 디지털 경제는 플랫폼 활동에 의한 지수 곡선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디지털 기술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경쟁력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불과하다. 디지털 세상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과 이로 인해 발생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로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가치가 높은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된 자산은 데이터와 상호작용이며, 이 두 가지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가치의 원천이자 그들의 경쟁우위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비즈니스는 가장 유망한 비즈니스모델이 되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델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책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에 담긴 사상을 이해해서 여러분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성열 양주성 지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혁신 전략

THE FUTURE OF DIGITAL BUSINESS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기업은 플랫폼으로 혁신한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미래 기업으로 성장하는 법

마더스북

이성열과 양주성이 지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는 2019년 리더스북에서 출간됐다.